

## 영역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Design Elements Related to Territoriality for Apartment Community Design

조성희\*

Cho, Sung-Heui

최인영\*\*

Choi, In-Yo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sign elements to strengthen apartment communities in territoriality perspective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identified the functions of territoriality to communities, and examined precedent studies on community planning. Then, looking into actual apartment, the study analyzed design elements of the apartments by territoriality functions, and found significant community-building and community-strengthening elements. The results of case studies are as follows: Specific design elements are 1) both individual and shared places from the perspective of possession, 2) both physical boundaries including visible mark and physical demarcation, and emotional boundaries including space arrangement and visual expansion from the perspective of boundary-regulation, 3) both physical proximity, such as providing space for physical encounter and easy access, and emotional proximity such as homogeneity and intimacy from the perspective of proximity 4) design differentiation and adoption of the design concept to express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proximity personalization.

Keywords : Apartment, Community, Territoriality

주요어 : 공동주택, 커뮤니티, 영역성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2000년 초 정부의 주택정책이 '내 집 마련'에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것으로,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 문제는 지속가능한 주거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커뮤니티(communitiy)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문화·역사를 함께 하는)사회, 공동사회, 공동체"로,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는 "주거단지라는 공간적 장소를 공유하면서 거주자들간의 지속적인 접촉과 공동생활의 참여를 통해 심리적 공동의식과 주거단지에 애착심을 가지는 사회 집단(박광재 외, 2001)"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의 형성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로 박재욱(2001)은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서 공동체의식의 형성이 요구되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적요소(동질성, 만족감과 관련된 심리적으로, 사적교류, 공적활동)와 물리적 요소(근접성, 영역성, 밀도, 장소성)를 제안하였다. 손세욱(1989)은 보다 영역성의 관점에서 근접성과 동질성,

공유의식, 방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근린관계 형성요인을 파악하였다. 또 남용훈(2005)은 아파트계획에서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하여 영역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각 영역에서의 영역성 확보와 커뮤니티시설, 주동구성이나 동선체계,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과 심미성의 부여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에 있어 영역성은 중요한 개념으로 주로 구역이나 경계, 방어, 교류를 위한 장소적 범위와 같은 물리적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영역성은 경계와 방어 외에도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공간에 대한 감정, 가치부여나 애착과 관련된 개념<sup>1)</sup>으로 이해되고 있어 커뮤니티와 연계된 영역성의 문제는 조직과 친밀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측면을 보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을 위해 중요한 개념인 영역성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커뮤니티 관련 계획방안들을 영역성 측면에서 사례의 계획요소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는 영역성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계획요소를 구체화한 연구로 커뮤니티 증진 방안 모색에 있어 영역성의 활용성을 재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정회원(주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이진환·홍기원 역(2004). 환경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6.

2. 연구방법 및 대상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에서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영역성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관련 계획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공동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요소를 영역성의 기능에 따라 분석하여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의 계획요소로 파악하였다.

사례는 국내·외 선진사례로 국내사례의 경우는 최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살기 좋은 아파트’<sup>2)</sup> 종합대상을 수상한 6단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외사례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sup>3)</sup>에서 새로운 공동주택의 기능성 및 공유공간, 외부공간 계획의 선진사례로 언급된 일본과 네델란드 건축가의 계획사례(6단지)로 하였다.

표 1. 분석대상단지

구분		위 치	규모
국내	A. 길음 푸르지오	2005수상	서울 성북구 2,350세대
	B. 신정동 동일하이빌	2006수상	서울 양천구 770세대
	C. 대전가오 코오롱하늘채	2007수상	대전시 동구 1,241세대
	D. 푸른마을 두산위브	2008수상	경기도 화성시 915세대
	E. 서초반포 자이	2009수상	서울 서초구 3,410세대
	F. 원당 e편한세상	2010수상	고양시 덕양구 1,486세대
국외	G. 시노노베캐널코트 코단	2005준공	일본 동경 2,087세대
	H. 나타노하마 HAT 고베	1998준공	일본 고베 1,886세대
	I. 기타가타주택 남블럭	2000준공	일본 기후현 430세대
	J. 암스테르담 Silodam	2003준공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165세대
	K. 산치나로 Mirador	2005준공	스페인 마드리드 165세대
	L. Parkrand Building	2006준공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240세대

II. 영역성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1. 영역성과 공동주택

1) 영역성의 기능

영역성은 1920년 영국의 조류학자인 하워드(E. Howard)의 동물들의 영역행태를 기록한 연구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이는 유기체가 자기주변에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 내의 영역을 주장하며, 이 영역에 대하여 타 개체나 집단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심리적 공간행태개념이었다.<sup>4)</sup> 생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영역(territory)과 영역성(territoriality)은 사회학, 인류학, 행태학 등과 연관되어 발전되어 영역성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다<표 2>.

2) 살기 좋은 아파트의 표준 제시를 목적으로 매일경제에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3) 관련문헌(공동주택연구회(2007). 주거단지계획; 공동주택연구회(2007). MA와 하우징 디자인; 전남일 외(2006). 네델란드의 건축가 네델란드의 주거) 및 새로운 공유공간 관련 선행연구, 정기간행물 기사, 인터넷자료를 통해 분석단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양호일(1990). 환경디자인의 행태학. 경기도: 유림문화사, 63.

표 2. 영역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sup>5)</sup>

연구자	정의
Stea (1960)	영역적 행태는 공간일부를 소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침입을 방호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Altman and Haythorn (1967)	영역은 인간과 집단에 의해 지역이나 대상물을 상호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Becker (1973) Becker and Mayo (1971) Sommer and Becker (1969)	영역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침략으로 방어되고 개인화되는 지형학적 지역의 측면이다.
Sommer (1969)	영역은 개인화되거나 표시된 지역 그리고 침입으로부터 방어되는 지리적 지역이다.
Pastalan (1970)	영역은 개인 혹은 그룹이 사용하며 외부에 대하여 방어하는 가정된 공간이다. 장소에 대한 심리적 식별성을 포함하며, 소유태도, 사물의 배치 등에 의하여 상징화된다.
Dyson-Hudson and Smith (1978)	영역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어느정도 배타적으로 점유되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고, 침입시 명백한 방어나 몇가지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격퇴시킨다.
Altman (1975)	영역적 행태란 자아-타인의 경계조절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의 개성화나 표시화 혹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소속된 대상물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다.
Edney (1976)	인간의 영역성은 크게 수동적인 사건이다. 인간이나 혹은 특정장소를 가진 인간의 연속적인 협력의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은 인간생활과 행태에 있어서 중요한 조직책이다.
Sack (1983)	인간의 영역성 관한 지리적인 지역에 관하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장하고 시도함으로써 행동과 사람, 사물의 교류에 영향을 주고 제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영역성은 초기에는 점유와 방어 기능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친밀 기능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포함한 개념으로 전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역성은 개인 또는 일정 그룹의 사람들이 소유 및 점유하며, 경계조절을 통해 방어, 통제, 배타적사용을 하게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조직하여 공유의식 또는 소속의식을 갖는 영역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역성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상준 외(1992)는 영역의 구조와 그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영역성의 기능을 점유와 중심성(소유), 개성화, 사회적교류, 방어로 설명하였다. 육현일(2000)은 소유, 통제, 방어, 배타적사용, 개인화(개성화), 경계조절, 근접성 정도로, 권민수(2005)는 소유, 방어, 배타적사용, 개성화, 조절, 경계로 설명하였고, 서혜영(2007)은 소유, 통제, 방어, 배타적사용, 개성화로 구분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영역성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5) 육현일(2000). 환경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경기도, 42-43; 강지명(1998). 거주행태 지원성 강화를 위한 도시집합주거 공유영역의 디자인방법과 그 과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8-11 재구성.

나타나 공동주택에서의 계획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 및 용어를 통합하고 재정리하여 영역성의 기능을 4가지(소유, 경계조절, 근접, 개성화)로 정리하였다.

소유(possesion)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능으로 어떤 영역의 실제적 소유나 소유권 그리고 특별한 유대관계나 오랜 시간의 사용을 통해 그 영역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소유의 기능이다. 이는 공간 계획에서 전용공간 또는 일부 거주민이 공유하여 소유의식을 갖게 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된다. 따라서 주거생활의 안정감과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sup>6)</sup>으로 이웃과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외부인과의 문제를 줄여주고 어떤 장소에 대한 애착심과 편안함을 갖게 한다<sup>7)</sup>.

경계조절(boundary-regulation)은 다른 영역과의 구분(육현일, 2000; 권민수, 2004) 즉, 경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경계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또는 맞추어 나감’의 의미인 ‘조절’을 포함함으로써 다른 영역과의 경계 설정보다 경계의 접속, 단절, 투과와 같은 조절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통제나 배타적사용 그리고 방어를 경계조절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공간계획에서 경계의 접속 및 단절을 유도하는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통해 영역에 대한 배타적사용과 통제 및 침입으로부터의 방어 뿐 아니라 심리적경계를 통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및 감시감호와 관계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조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의 안전 및 안정성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체적으로 Newman(1972)은 경계의 표지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분명한 상징물이 없는 공공지역이 파괴될 개연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계조절이 잘 구축된 영역은 들어오는 자극의 양과 복잡성을 줄이고,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sup>8)</sup>.

근접(proximity)은 개인간, 집단간의 거리의 개념으로 이웃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동질성과 친밀감형성과 관계된 기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접은 이웃간의 접촉기회로서 물리적 거리 뿐 아니라 동질성 및 친밀감을 갖게 되는 심리적 거리를 포함한다. 즉, 공간 계획에서 근접은 단지내 거주민들 간의 사회적 접촉기회 부여를 위한 점점공간의 형성 같은 물리적 거리에서의 외접과 동질성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 거리감 제거 계획방안과 관련된다. 근접성이 높으면 주거내·외부 사이의 시각적, 동선적 연속성이 높아지고 공유된 영역을 통해 친밀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진다<sup>9)</sup>.

마지막으로 개성화(personalization)는 개성을 표시하여 영역을 구체화하는 기능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화, 개성화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었으나 의미전달을 위해 개성화로 정리하였다. 개성화는 개성의 표현을 통해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냄으로 영역화하는 것으로 공간계획에서는 표식, 물건의 배열, 디자인 등을 통해 개성을 부여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는 단지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주변 환경과의 결속을 강화해줌으로써 식별성, 적정자극, 안전성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sup>10)</sup>.

## 2) 영역성과 공동주택의 공간구조

공간구조에 관한 다양한 공간모델이론들을 살펴보면, Altman 외(Altman&Chemers,1980)는 점유기간, 점유자와 타인들에게 불리일으키는 인지(지각된 소유권의 정도), 사유화의 양 그리고 침해받았을 때 방어할 개연성 등<sup>11)</sup>에 따라 영역을 1차영역, 2차영역, 공적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차영역은 소유와 통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적영역이며, 2차영역은 1차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어주는 매개영역이고, 공적영역은 누구나 접근 사용가능한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Porteous(1977)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공간으로서 침해받지 않는 사적공간인 Micro Space(미시공간)와 반영구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개체적인 것에서 일차집단이나 근린생활권까지 포함한 공간인 Meso Space(매개, 중간공간),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점유나 방어를 하지 못하는 Macro Space(광역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J. Lang은 Porteous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Personal Space(개인공간), Home Base(거주기반), Home Range(거주환경)으로 구분하였다<sup>12)</sup>. 이에 대해 뉴만(Oscar Newman)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적/공적 구분을 시도하여 공간단계를 Private Space(사적공간), Semi-Private(반사적), Semi-Public(반공적), Public Space(공적공간)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영역성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조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주택특성으로 인해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이를 공유하는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구성한다. 이상준 외(1991)는 영역성을 공동주택에서의 소속감 및 영역의식 고양측면에서 접근하여 공동주택의 영역을 신체영역, 공유영역, 공공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공유영역이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을 수용하는 영역으로 집단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완충역할의 공간이라 설명하였다. 강지명(1998)은 공동주택의 거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충분한 공유영역의 확보를 통한 근린의식 및 사회적 교류확대에 주목하여 공동주택의 공간을 크게 사적영역, 공유영역, 공적영역으로 구분하고 공유영역을 다시 반사적영역, 반공적영역으로 세분하였다. 반사적영역은

6) Edney, J.J.(1975). Territoriality and Control: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6), 189.

7) 이진환·홍기원 역(2008). 전계서. 214.

8) 이진환·홍기원 역(2008). 전계서. 209, 218.

9) 육현일(2000). 전계서. 52.

10) 서혜영(2007). 고층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영역성표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11.

11) 이진환·홍기원 역(2008). 전계서. 206-207.

12) 강지명(1998). 전계서. 15-21, 재인용.

반공적공간에서 단위세대로 옮겨가는 공간으로 파악하였고, 반공적영역은 근린지역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공적공간이 단지 내로 끌어들여져 친밀화된 공간으로 반사적영역에 비해 사회적교류, 공동체의식향상, 비점유 등 공적공간의 행태적 특성을 보이는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공동주택의 공간범위와 연계시켜 권민수(2004)는 단위주호를 사적영역, 단지를 공유영역, 단지외부를 공적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공유영역을 다시 주호 및 주동주변의 반사적영역과 단지내부의 반공적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주택의 공간구조를 사적공간, 공유공간, 공적공간으로 크게 구분하고, 공유공간을 세분화하여 반사적공간과 반공적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적공간은 소유 및 통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개인 주호단위이고, 공적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및 사용하지만 점유나 방어가 나타나지 않는 단지 외부의 근린지역 및 도시단위의 공간이며 공유공간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사이공간으로 거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단지내부 공간이다. 공유공간 중 반사적공간은 주호와 주동인근 범위이고, 반공적공간은 이외 단지내 공간으로 공간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공유공간은 거주민들의 집단적 소유의식과 책임감, 소속감, 식별성을 강화시켜주는 공간으로서(변희협, 1988)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은 공유공간임을 파악하였다.

표 3. 영역성과 공동주택의 공간구조

O.Newman (1979)	이상준 외 (1991)	강지명(1998), 권민수(2004)	공동주택의 공간구조		
			영역구분	공간범위	
Private Space	신체영역	사적영역	사적공간	주호	
Semi-Private	공유영역	공유영역	반사적영역	반사적공간	주호, 주동인근
Semi-Public			반공적영역	반공적공간	단지내부
Public Space	공공영역	공적영역	공적공간	단지외부	

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관련 계획요소

공동주택의 커뮤니티(community)는 특정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속을 꾀하는 사회집단으로(대한주택공사, 1999) 이의 형성과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획요소들이 제시되어 왔다<표 4>.

박광재 외(2001)는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의 점점 공간구성,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티 공간구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공간구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공간구성 개념에 근거하여 계획요소를 제안하였다. 남용훈 외(2005)는 커뮤니티형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도시영역까지 확장하여 경계영

표 4.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관련 계획요소

연구자	내용	공유공간		
		반사적	반공적	
박광재 외 (2001)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주거동의 그룹핑		●	
	NS형(통과형) 주거동 배치에 의한 이웃간의 접촉기회 증대		●	
	클러스터형 주거동 그룹핑		●	
	주거동 주변의 생활공간화	●	●	
	주동 저층부 필로티 계획으로 주거공간 연계성 확보, 놀이공간조성	●	●	
	주거동 출입구 주변과 연계된 유아놀이터 및 휴게공간조성	●	●	
	주거동 출입구 전면공간의 확장으로 일상적 접촉공간 확보	●	●	
	단지내 보행공간의 생활공간화와 안전성 확보	●	●	
	단지중심 보행로에 도시적기능의 유입으로 활력있는 가로공간조성	●	●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로형 주거동 도입	●	●	
	단지내 전체 보행로에 연계로 보행시간증대, 일상적 접촉기회제공	●	●	
	주거동내 가로공간 및 공중마당 조성	●	●	
	계단실형 주택에 마당형발코니 적극 도입과 투시형 출입문 설치	●	●	
	복도공간의 확대와 공중가로에 의한 단위주택간의 연계성 확보	●	●	
	남용훈 외 (2005)	복도공간의 부분적 알코브 구성과 간이 벤치 등의 휴게공간조성	●	●
근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보행광장과 복합공간 조성			●	
보행전용공간과 단지내 옥외생활시설의 연계 계획			●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점에 보행광장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핵 조성			●	
생활영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일상적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	
주거동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시설 배치(1층, 지하층, 중간층 활용)		●	●	
단지 진입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인식성 제고			●	
중앙광장에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 배치			●	
집회소 등 다목적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 도입			●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가능한 가변형 시설공간 조성		●	●	
옥외 휴게공간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 조성			●	
주거동 주변의 공동채워 및 정원 조성		●	●	
단지내 일상적인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홀 조성			●	
어린이 손도장, 그림 등을 소재로 한 마감재사용(거주자참여기회)		●	●	
* 도시 범위 제외		(테마)공원	아이 보호자의 커뮤니티 형성지원	●
	덧발	공동관리를 통한 자연스런 커뮤니티 형성지원	●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공간과 조합 통한 커뮤니티형성지원	●	
	옥상정원	커뮤니티시설과의 조합을 통한 활용도 확보	●	
	정자목	심리적 중심 조성을 통한 동질성 및 정체성 강화	●	
	가로시설물	주동입구와 연계, 자연스런 커뮤니티 형성지원	●	
	블록구조	기존 블록구조 보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연속성 확보	●	
	외부공간컨셉	전통적 컨셉을 통한 개방적이고 친숙한 공간 부여	●	
	상징물	지명, 역사성을 통한 정체성 및 애착심 강화	●	
	보행도로	보차분리 통한 안전성, 친환경성, 쾌적현의공간조성	●	
	주차장	테크조성, 공지와 동선 통한 자연스런 커뮤니티형성	●	
	쉼터	다양하고 관계성 있는 행위 연속 통한 커뮤니티형성	●	
	수공간	기존 수자원 활용 및 다양한 수공간 조성	●	
	* 도시 범위 제외	주동배치	주변지역 열린배치 통해 시선, 경관, 사람의 교류지원	●
		주동형태	경계부 층수감소를 통한 휴먼스케일의 경관유도	●
주동홀		입구홀 평상, 여유공간 통해 주동단위 커뮤니티지원	●	
주동층벽		넉넉, 수직성나무 등 식재 통한 외부공간 심미성향상	●	
입벽		분할과 재료를 통한 심미성 부여	●	
커뮤니티시설		생활동선과 연계되어 관련 행위와 행태 고려한 조합	●	
개인정원		개인영역의 확장을 통한 주민교류행위지원	●	
고층		최상부층 차별화요소로서 심미성지원	●	
필로티		높고 넓은 개방 통해 열린 단지구성 및 경관의 공유	●	
주동입구		스케일감의 다운 및 디자인을 통한 주동의 개성부여	●	
직출입구		직출입구 통한 영역의 확장성/심미성 부여	●	
베란다		베란다에서의 다양한 활동 고려, 외부와의 교류 유지	●	
테라스		주호의 외부활동영역 조성, 활력, 커뮤니티형성지원	●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형성지원	●	
박태동 (2006)		주동의 배치에 의한 주동 사이공간 조성		●
	영역성 상징을 위한 주동진입공간계획	●	●	
	단지 중심공간 광장(휴게 및 놀이시설과 연계, 외부공간의 연속성)		●	
	주동의 클러스터 배치에 의한 커뮤니티공간 영역성 부여		●	
	주동 측면 공간의 커뮤니티공간 조성		●	
주민센터, 체육시설, 놀이시설, 공동채소밭 등 커뮤니티공간조성		●		
산책로, 보행전용로		●		
주동형태, 배치형태		●		

역, 단지영역, 주동/주호영역로 파악하고 이들 각각의 영역별로 커뮤니티 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 또 박태동(2006)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계획요소를

외부공간의 공간적, 동선적, 주민의식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계획요소를 영역구분에 의한 공유공간의 특성이나 영역성의 기능과 연결시키기 보다는 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공간범위와 연계시켜 계획요소를 구체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계획요소가 서로 다른 분류로 인해 중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공유공간의 영역별로 재정리하여 구체적 계획요소를 살펴보았다. 반사적영역에서는 주동주변의 휴게공간 및 접점공간 조성, 인간친화적 디자인 적용, 필로티 도입, 데크상부 공용공간화, 저층부 공용공간화 등의 계획방안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동 내의 공용 베란다 및 테라스 도입, 공중가로, 공중마당, 복도의 휴게공간 조성 등의 방안이 나타났다. 그 외 커뮤니티단위 그룹핑, 주동 입면차별화, 1층 전용 정원 및 출입구, 마당형발코니, 시선교환이 가능한 낮은 출입문 등이 나타났다.

반공적영역에서는 주동배치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적용 및 그룹핑, 단지경계 저층 배치를 통한 인간친화적스케일 적용, 단지내 시각통로 확보 등의 방안이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공간과 관련된 생활공간화, 놀이공간화, 커뮤니티 시설 및 휴게시설과의 연계, 보행물의 조성 등의 방안이 나타났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운동 및 휴게시설, 공원, 광장, 수공간, 텃밭, 산책로 등의 조성,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동체 활동공간도입 등의 방안이 나타났으며, 이외 거주자 참여디자인, 단지진입공간의 상징성부여 등의 계획방안이 나타났다.

### III. 사례분석

커뮤니티에 관련된 영역성의 기능(소유, 경계조절, 근접, 개성화)에 따라 실제 공동주택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요소를 파악하였다.

#### 1. 소유(possession)

공유영역에 속한 공간에 대해 형성되는 소유의 인식정도에 관계되는 영역성의 기능으로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국내사례에서 C단지는 1층 세대 전용출입구, 최상층 세대 다락방 및 테라스 등의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사례로 G단지는 주동내에 부속실형의 테라스를 도입하여 인접세대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K단지는 주동내 공중광장을 조성하여 거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유 기능을 활용하는 계획요소는 전용화공간 및 공동소유 공간의 제공과 관련되어 표현됨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사례의 경우는 비선호층의 특화전략 성격이 강한 전용출입구 및 공

간 계획으로 나타난데 반해 국외사례에서는 주동내 공용 테라스, 옥상정원 및 광장 등 새로운 공유공간을 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유에 따른 계획요소는 반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전용화 및 공동소유로 성격 지워진 세대전용출입구 및 공간의 제공, 주동내 공용공간(테라스, 공중정원, 공중광장) 도입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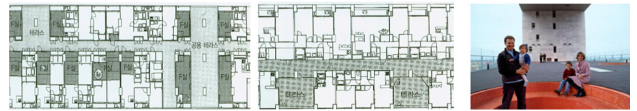


그림 1. G부속실형 공용테라스

그림 2. K공중광장

#### 2. 경계조절(boundary-regulation)

경계조절은 경계의 접속, 단절, 투과를 조절하여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으로 물리적경계로는 반사적영역에서 모든 국내단지가 주동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주동경계를 형성하였고, 반공적영역에서도 국내단지에서는 단지입구 게이트 및 조형물의 설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D단지는 단지입구에 게이트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입구를 표시함으로써 적극적 경계조절 의지를 표현한 예이다. 이 외에 E단지는 데크를 통해 단지전체의 레벨을 조정하여 외부에 대해 단지의 경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계의 단절과 관련된 물리적경계는 표시 및 공간한정을 통해 표현됨을 볼 수 있으며, 국외사례보다 국내사례에서 두드러진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경계에 따른 계획요소는 반사적영역에서는 주동입구 게이트 설치, 반공적영역에서는 단지입구 게이트 및 조형물 설치와 대지레벨조정이 파악되었다.

심리적경계로는 반사적영역에서 주동내 복도 및 브릿지, 계단을 노출형으로 구성하여 시각적확장을 유도하였다. G단지의 경우 일부 주동에 노출형 복도와 브릿지를 계획하고 시각적확장을 통해 자연적 감시성을 부여하였고, 주거 외 상업시설이 복합된 G단지, H단지, L단지에서는 주거부의 수직 공간분리를 통해 심리적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공적영역에서 L단지는 중정을 갖춘 ㄷ자형 주동형태와 입면보이드를 통해 선큰형의 공유공간을 위요화한 예로 시각적확장을 통해 감시성을 확보하였다. H단지는 단지입구에 큰 광장을 배치하여 전이공간을 통한 심리적경계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경계의 접속, 투과와 관련된 심리적경계는 조닝이나 전이공간을 통한 경계인식, 노출형구성이나 위요화와 같은 방어와 관련된 시각적확장을 통해 표현됨을 볼 수 있다. 특히 방어와 관련된 공유공간의 위요화는 국내의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계획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경계에 따른 계획요소는 반사적영역에서는 시각적확장과 관련된 주동복도 및 브릿지, 계단의 노출형구성, 공간분리와 관련된 주거부의 수직 공간분리가 파악되었다. 반공적영역에서는 시각적확장과 관련된 공유공간

표 5. 영역성 측면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관련 계획요소

기능	공유 공간	계획요소	사 례	국내사례					국외사례							
				A	B	C	D	E	F	G	H	I	J	K	L	
소유	반사적	세대전용 출입구 및 공간 제공		C. 1층세대 전용출입구, 최상층세대 다락방 및 테라스 제공으로 전용공간 부여			●									
		주동내 공용테라스, 공중정원 및 광장 도입		G. 주동내 부속실형의 공용테라스 도입으로 인접세대의 다양한 활동 수용							●				●	
경계 조절	물리적 경계	반사적	주동입구 게이트 설치		A. 주동입구 게이트 설치	●	●	●	●	●	●					
		반공적	단지입구 게이트 및 조형물 설치		D. 단지입구 조형물 설치로 입구 표식	●	●	●	●	●						
	심리적 경계	반사적	주동복도 및 브릿지, 계단의 노출형 구성		G. 노출형 복도 및 브릿지계획으로 시각적 확장을 통한 자연감시성 부여							○	●	○	●	
		반공적	수직 공간분리에 의한 경계구축		G. 도시가로의 연장인 저층부 보행물과 상층부 주거부를 수직으로 공간분리								●	●		●
			공유공간의 위요화		L. 자 주동형태와 입면보이드를 통한 시각적확장을 통한 자연감시성부여	●	●	●	●	●	●	●	●			●
			단지입구 전이공간 형성(계단 및 광장)		H. 단지 입구에 광장을 배치하여 전이공간 형성	●				●	●	●				
근접	물리적 근접	반사적	필로티도입		A. 필로티를 통한 개방성 확보로 거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접촉기회 부여	●	●		●	●	●	●	○			
		주동입구 휴게공간 조성		C. 주동 입구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점점공간형성	●	●	●	●	●	●	●					
		주동내 보행가로 조성(공중가로 및 브릿지)		J. 주동 일부공간에 보행가로를 조성하여 점점공간형성							●	●	○	●		
		주동 저층부에 공유공간 배치		L. 저층부에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공간, 공유공간 배치하여 접근성 증진								●	●		●	
		공유공간 직출입계단 설치		I. 주거동 외부에 직출입계단을 설치하여 공유공간으로의 접근성 증진										○		
	반공적	대향배치 및 자 주동배치		G. 중정형 주동배치로 중앙 공유공간에서의 접촉기회 증대	●	●	●	●	●	●	●	●				
		보행물 조성		G. 1층레벨의 보행물에 소호 및 생활지원시설 구성하여 점점공간형성									●	●		
		테크 상부 공유공간 조성		G. 테크상부에 중정공간을 조성하여 점점공간형성									●	●		
		오픈스페이스 및 광장, 산책로 조성 및 연계		C. 단지중앙에 광장, 생태연못 등 집약하고 보행자거리와 연계하여 접촉기회증대	●	●	●	●	●	●	●	●	●	●	●	
		단지내 휴게공간 조성 및 연계		E. 가든카페, 워터프런트 카페 등 다양한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점점공간형성	●	●	●	●	●	●	●	●	●	●	●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및 집약		E. 다양한 행위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시설 도입하고 이를 집약하여 접촉기회 증대	●	●	●	●	●	●	●	●				
		심리적 근접	반사적	주호의 반개방형 발코니 도입		I. 주호의 반개방형 발코니계획으로 시각적 교류를 통한 친밀감부여									○	
반공적	주동입구 및 저층부 인간친화적스케일 적용			H. 보행로변 주동하부 입면분절, 셋백으로 인간친화적스케일 적용하여 친밀감부여	●	●	●	●	●	●	●					
	커뮤니티단위 그룹핑			J. 단위평면 형태에 따라 4-9호의 커뮤니티 단위로 그룹핑하여 동질성부여										●	●	
개성화	반사적	주동 입면차별화		G.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테라스를 통해 입면에 변화감을 부여하여 차별화	○	○	○	○	○	○	●	●	●	●		
		주동내 조닝별 디자인차별화(형태,색채,재료 등)		J. 주동내 조닝별로 차별화된 복도색채 적용										●	●	
	반공적	랜드마크화		K. 새로운 컨셉 및 디자인 적용으로 랜드마크화									●	●	●	
		예술과의 접목		L. 단지내 예술작품 배치	●	●	●	●	●	●	●		●			
		디자이너 및 브랜드 가치부여		I. 4명 건축가의 디자인 적용이라는 가치부여	●	●	●	●	●	●	●	●	●	●	●	

●: 전체적용, ○: 일부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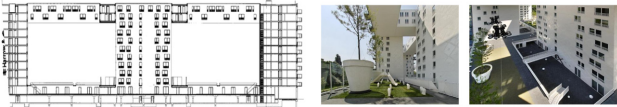


그림 3. L.정측면도(입면보이드), 선큰형 공유공간



그림 4. C.단지 중앙광장 및 생태연못



그림 5. H.보행물 주변 고령자 개조지원센터

의 위요화와 공간분리와 관련된 단지입구 전이공간 형성이 파악되었다.

### 3. 근접(proximity)

근접은 동질감과 연관된 개인간, 집단간의 거리 기능으로 물리적 근접은 반사적영역에서 국내사례 대부분이 1층에 필로티를 도입하고, 주동입구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단지는 주동입구에 정원 및 보행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지원하였다. 국외사례의 경우 G단지와 H단지는 필로티와 주동입구 휴게공간 뿐 아니라 주동 저층부에 노인시설 및 아동시설, 갤러리 등의 공유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거나 공중가로 및 브릿지 등 주동내에 보행가로를 조성하여 거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접촉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I단지는 일부 주동에 직출입계단을 도입하여 공유공간으로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공적영역에서는 국내·외 대부분에서 오픈스페이스 및 야외광장과 산책로의 조성, 단지내 휴게공간 계획이 나타났다. 특히,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시설과 관련된 계획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E단지는 휘트니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의 다양한 스포츠시설 뿐 아니라 회의장, 클럽하우스, 게스트룸 등의 거주민 활동지원공간을 포함한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였다. 국외사례인 G단지와 H단지는 1층 레벌에 보행물을 도입하고 가로변에 상점, 거주자 지원시설, 노인양로휴 등 생활지원시설을 배치하여 거주민 뿐 아니라 인근의 거주민들과도 점점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단지는 데크를 도입하여 데크상부를 중정공간으로 조성하여 거주민들의 점점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자형 주동배치를 통해 중앙의 공유공간에서 거주민들의 접촉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물리적근접은 접촉기회 제공 측면에서의 점점공간형성, 접근성제공과 관련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근접에 따른 계획요소는 반사적영역에서는 필로티 도입, 주동입구 휴게공간 조성, 주동내 보행가로 조성, 주동 저층부에 공유공간 배치, 그리고 직출입계단 설치가 파악되었다. 반공적영역에서는 대향배치 및 □자 주동배치, 보행물 조성, 데크 상부 공유공간 조성, 오픈스페이스 및 광장과 산책로 조성 및 연계, 단지내 휴게공간 조성 및 연계,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및 집약을 파악하였다.

심리적근접은 반사적영역에서 I단지에서 외기에 면한 주동내 복도공간에 시각적으로 오픈된 개방형발코니를 설치하여 거주민들의 시각적교류를 통한 친밀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단지는 평면유형에 따라 4호-9호까지 조합하여 커뮤니티단위를 그룹핑하여 이들간의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사례에서는 주동 저층부의 색채 및 마감을 분리하여 인간친화적스케일을 활용하는 친밀감 부여의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외사례로 H단지는 보행물에 면한 주거동 입면에 포티코(portico)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저층부 입면분절, 섯백을 통해 인간친화적스케일을 적용하여 보행환경에 친근성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공적영역의 경우 H단지에서 보행물에 인접해 중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후면에 고층건물을 배치하여 시각적 위화감을 완화시켜 친밀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리적근접은 동질성 및 친밀감부여와 관련되어 표현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근접에 따른 계획요소는 반사적영역에서는 주호의 반개방형 발코니 도입, 주동입구 및 저층부 인간친화적스케일 적용, 커뮤니티단위 그룹핑이 파악되었다. 반공적영역에서는 경계부 및 보행로 주변 저층배치를 파악하였다.



그림 6. J.평면유형에 따른 커뮤니티단위 그룹핑

그림 7. H.저층부 입면분절 및 섯백, 보행로변 저층배치

### 4. 개성화(personalization)

개성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표현과 관련된 기능으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반사적영역에서는 G단지의 경우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테라스를 통해 입면의 변화감을 부여하여 차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사례의 경우 주동을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사례에서와 같은 적극적 차별화디자인이 아닌 마감재료나 색채디자인 구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G단지와 H단지는 주동내 조닝별로 차별화된 색채계획을 적용하여 개성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공적영역에서는 새로운 컨셉 적용의 네델란드건축가 사례 등 국외사례에서 랜드마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단지의 경우 4명의 건축가가 각자의 컨셉으로 진행한 다양한 주동계획을 통해 주동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례를 중심으로는 예술작품을 단지 곳곳에 배치하거나 점목하여 단지를 차별화한 예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성화는 정체성표현 측면에서 차별화디자인 및 컨셉 적용과 관련되어 표현되

고 있는데 국외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성화에 따른 계획요소는 반사적영역에서는 주동 입면차별화, 주동내 조닝별 디자인차별화가 파악되었고, 반공적영역에서는 랜드마크화, 예술과의 접목, 디자인어 및 브랜드 가치부여가 파악되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영역성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계획요소를 구체화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증진과 관련된 영역성의 기능을 소유, 경계조절, 교류, 개성화로 구체화하였다.

둘째, 영역성의 기능 중 근접과 관련된 계획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과 관련하여 근접이 중요한 계획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사례에서 근접은 점점공간형성과 관련된 계획요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국외사례에서는 새로운 공유공간과 관련된 계획요소로 나타나 이를 통해 커뮤니티 증진 및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다. 소유는 국내사례에서는 세대전용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나 국외사례에서는 주동내 새로운 공유공간의 계획으로 나타났다. 경계조절은 국내사례에서는 주로 물리적경계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방어와 관련해서 공유공간의 위요화가 국내·외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통적인 계획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성화는 국외사례에서 새로운 디자인 및 컨셉 적용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국내사례에서는 단지내 예술작품을 배치하거나 브랜드가치부여, 주동입면의 색채나 마감재 구분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국내사례의 경우 주로 반공적영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요소로 나타났으며, 국외사례에서는 반사적·반공적영역에서의 새로운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영역별로 살펴보면 반사적영역은 국내사례에서는 주로 물리적경계와 관련된 주동입구게이트, 물리적근접과 관련된 필로티, 주동입구 휴게공간, 심리적근접 등의 계획요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국외사례에서는 심리적경계나 물리적근접에서 국내에 비해 다양한 계획요소로 나타나 주동내 다양한 공유공간 형성을 통한 새로운공간 및 계획의 적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반공적영역은 국내사례에서는 물리적경계, 물리적근접과 관련된 계획요소가 커뮤니티 형성 및 증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국외사례에서는 물리적근접과 개성화와 관련된 계획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역성을 통해 커뮤니티 관련 계획방안들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 연구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성이 실제 거주민들의 행태특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지명 (1998). 거주형태 지원성 강화를 위한 도시집합주거 공유영역의 디자인방법과 그 과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 공동주택연구회 (2007). 주거단지계획. 과주: 동녘.
3. 공동주택연구회 (2007). MA와 하우징 디자인. 과주: 동녘.
4. 권민수 (2004). 현대 도시공동주택의 영역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5. 남용훈·신중진 (2005). 커뮤니티 개념을 고려한 아파트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논문집, 6(3), 5-18.
6. 대한주택공사 (1999).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7. 박광재·백혜선·서수정 (2001).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연구.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8. 박재욱 (2001). 집합주거단지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9. 박태동 (2006). 아파트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서울.
10. 변희협 (1988). 근린의식 향상을 위한 반사적 영역의 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11. 서혜영 (2007). 고층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영역성표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12. 손세옥 (1989). 집합주거에 있어서 근린관계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전대학교 논문집, 8(1), 243-254.
13. 양호일 (1990). 환경디자인의 행태학. 경기도: 유림문화사.
14. 육현일 (2000). 환경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경기도.
15. 이상준·임영배 (1991). 집합주거환경의 영역성 연구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6), 61-74.
16. 이상준·임영배 (1992). 영역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영역개념의 구조적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9), 55-67.
17. 이진환·홍기원 역 (2004). 환경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18. 전남일·박혜선·문은미 (2006). 네덜란드의 건축가 네덜란드의 주거. 서울: 발언.
19. 정무웅 외 6인 (2009). 건축디자인과 인간행태. 서울: 문운당.
20. 최종인·이낙운 (2006). 집합주거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기초적 연구. 조형예술연구논문집, 7, 59-73.
21. Edney, J. J. (1975). Territoriality and Control: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6), 189.
22. Fitzhugh, J. R. & Anderson, J. R. (1980). Personalization, Control, Securit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10-16.

접수일(2010. 10. 22)  
수정일(1차: 2011. 1. 5)  
게재확정일(2011. 1. 28)